



14년 2분기 외식업 경기, 세월호 사고로 회복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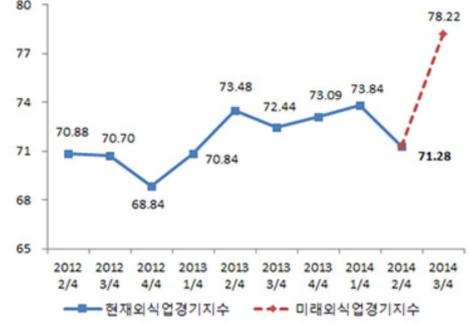
월드컵 특수 영향 미미...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2014년 2/4분기 외식업경기지수는 최근 1년 만에 최저치(71.28)를 기록하며, 국내 외식업계는 경기 둔화라는 악재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감소로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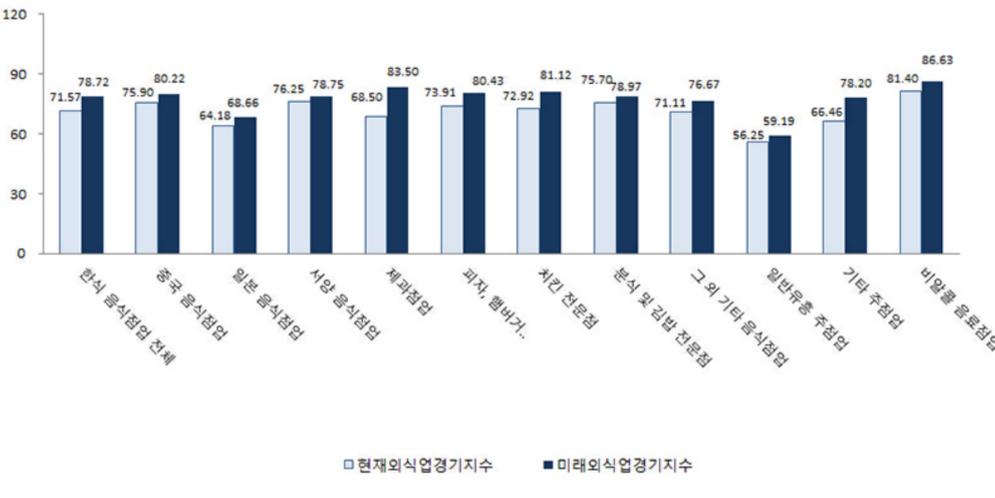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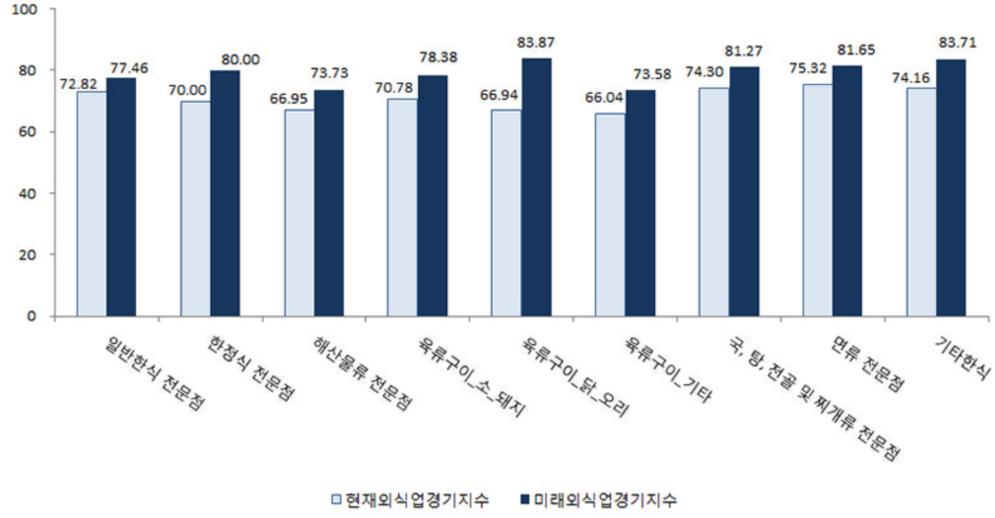
2012년 4/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외식업경기지수는 세월호 사고를 덮을 만한 호재로 여겨졌던 월드컵 특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의 자숙적 분위기는 주점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BSI인 외식업경기지수와 더불어 제조업 BSI와 비제조업BSI도 2/4분기 각각 77.0과 66.0을 기록하고 있어 2014년 2/4분기 경기부진이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웃돌고 있으나, 외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외식비 지출전망은 여전히 100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외식시장의 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3.84 ↘ **71.28**
(*14.1/4) (*14.2/4)



업종별 동향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종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알콜음료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하락폭이 컸던 업종은 오리구이 전문점, 일식음식점, 주점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음식점, 해산물류전문점 그리고 닭·오리 전문점은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국민 식재료 불안심리에 영향을 받았던 업종으로, 이번 분기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2014년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2개월 시점에서 외식업체는 평균 26.7%의 매출 감소를 보였으며, 사고 이후 1개월 시점보다도 약 1.2%p 매출이 더 감소하여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소비 심리의 회복이 더디어질 경우 외식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 외식업경기지수(KRBI): 전년동분기 대비 매출의 증가, 감소 사업체수를 고려하여 외식업에 대한 경기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50~150사이의 값을 가지며 모든 사업체가 전년 동분기 매출의 증감이 없는 경우는 지수가 100이고, 100 미만인 경우 감소 사업체수가 증가 사업체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text{산출식: KRBI} = \frac{(\text{증가} \times 0.5 - \text{감소} \times 0.5)}{\text{전체응답사업체수}} \times 100 + 100$$

· 현재외식업경기지수: 전년 동분기 대비 금년 동분기 매출의 증가, 감소 사업체수를 고려하여 외식업에 대한 경기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미래외식업경기지수: 전년 동분기 대비 향후 3개월간 매출의 증가, 감소 사업체수를 고려하여 외식업에 대한 경기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업종	지수추이	업종	지수추이
일반한식	77.20 ↘ 72.82 (*14.1/4) (*14.2/4)	일식	70.49 ↘ 64.18 (*14.1/4) (*14.2/4)
한정식	75.00 ↘ 70.00 (*14.1/4) (*14.2/4)	서양식	77.48 ↘ 76.25 (*14.1/4) (*14.2/4)
해산물류	71.40 ↘ 66.95 (*14.1/4) (*14.2/4)	제과점업	65.00 ↗ 68.50 (*14.1/4) (*14.2/4)
육류구이 (소·돼지)	73.95 ↘ 70.78 (*14.1/4) (*14.2/4)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	73.91 = 73.91 (*14.1/4) (*14.2/4)
육류구이 (닭·오리)	71.73 ↘ 66.94 (*14.1/4) (*14.2/4)	치킨	72.87 ↗ 72.92 (*14.1/4) (*14.2/4)
육류구이 (기타)	70.19 ↘ 66.04 (*14.1/4) (*14.2/4)	분식및김밥	80.00 ↘ 75.70 (*14.1/4) (*14.2/4)
탕류·전골·찌개, 찜	74.88 ↘ 74.30 (*14.1/4) (*14.2/4)	그 외 기타음식점	84.21 ↘ 71.11 (*14.1/4) (*14.2/4)
면류전문점	71.79 ↗ 75.32 (*14.1/4) (*14.2/4)	유흥주점	58.82 ↘ 56.25 (*14.1/4) (*14.2/4)
기타한식	70.83 ↗ 74.16 (*14.1/4) (*14.2/4)	기타주점	73.49 ↘ 66.46 (*14.1/4) (*14.2/4)
중식	74.28 ↗ 75.90 (*14.1/4) (*14.2/4)	비알콜	83.77 ↘ 81.40 (*14.1/4) (*14.2/4)



주) 식재료원가지수 및 프라임원가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흐린 날씨에 가까움

2014

2/4 분기 외식업경기 동향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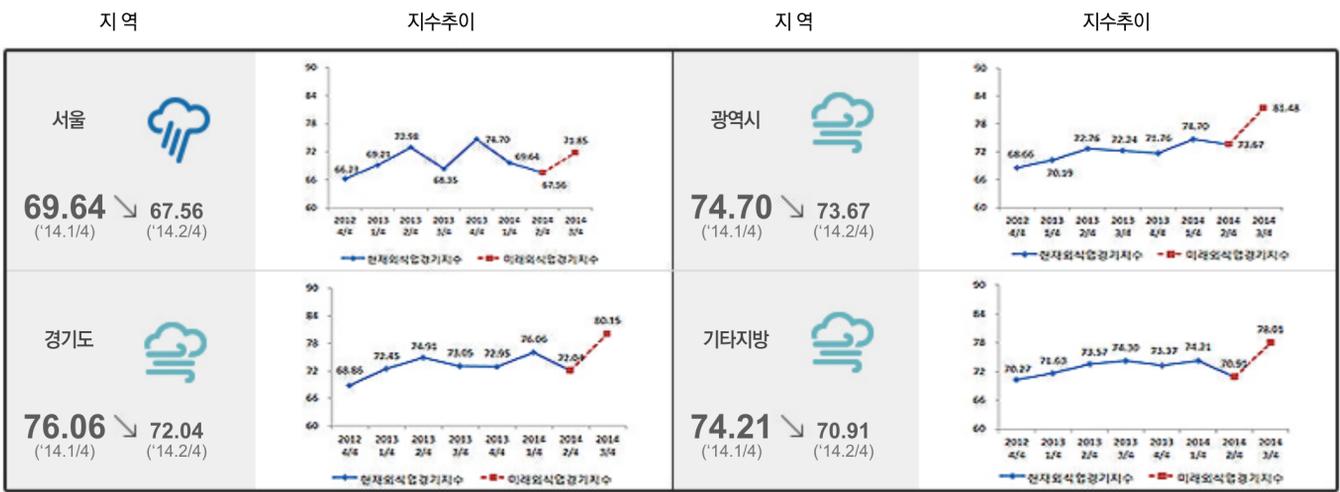
Korean Restaurant Brief



지역별 동향

4대권 권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지역별 동향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지수가 하락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뚜렷한 경기의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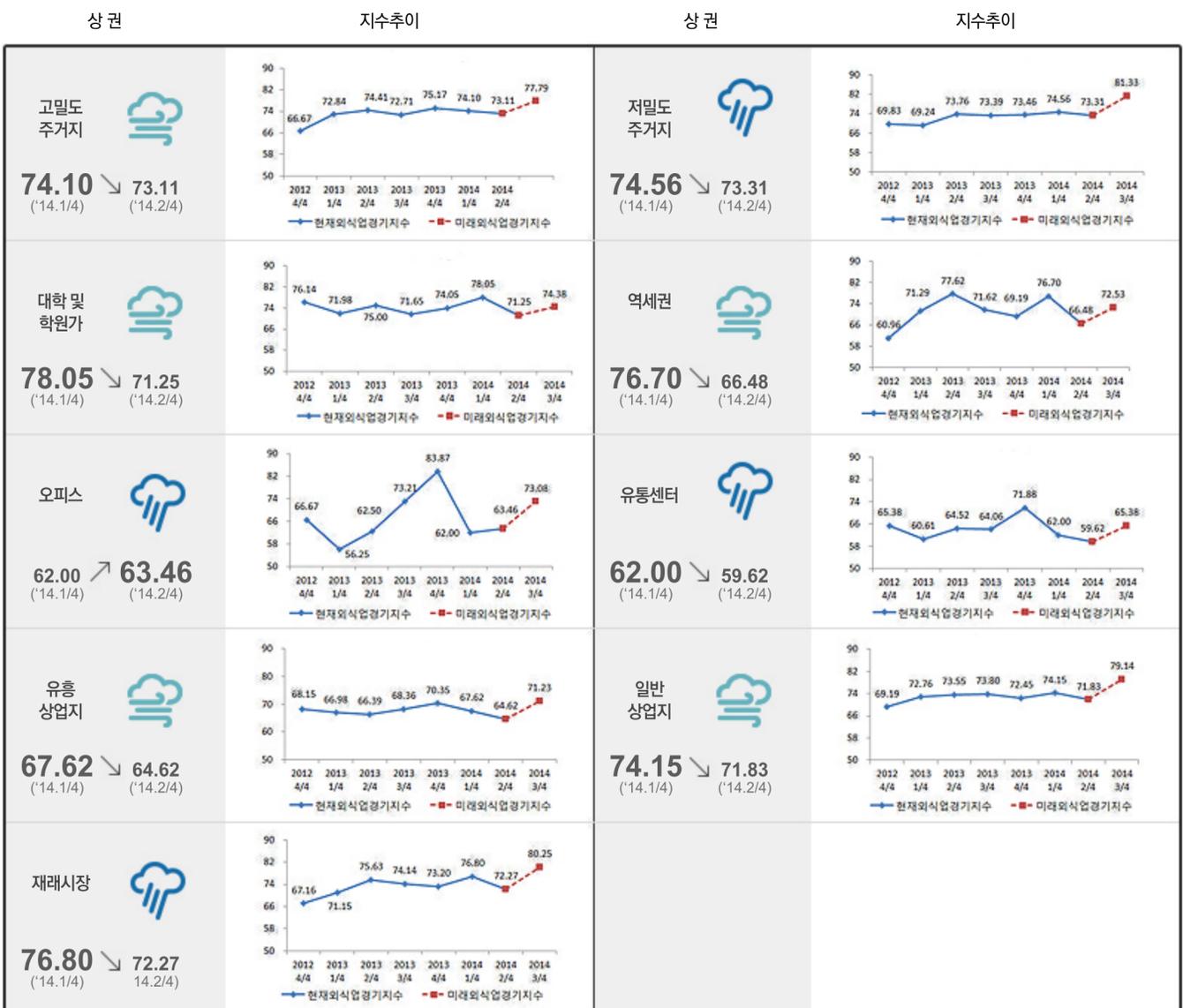
- 서울 지역은 2013년 4/4분기 이후 2014년 상반기에 지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내 경기하락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도권을 제외한 강남, 비강남, 경기도는 북부, 남부, 신도시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비강남권과 신도시에서 경기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2014년 3/4분기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수의 상승, 즉 경기의 회복세를 기대하였으나 서울의 경우는 지역 중 미래 경기를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상권별 동향

상권별 동향을 살펴보면 주거지에 비해 상업지의 매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세월호 사고 이후 모임의 회수가 줄면서 상업지에서 보다 주거지에서 외식 소비가 더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상업지에서도 유통센터, 오피스, 유흥상업지의 매출 감소가 더욱 컸다.



주) 식재료원가지수 및 프랜차이즈원가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흐린 날씨에 가까움

2014

2/4 분기 외식업경기 동향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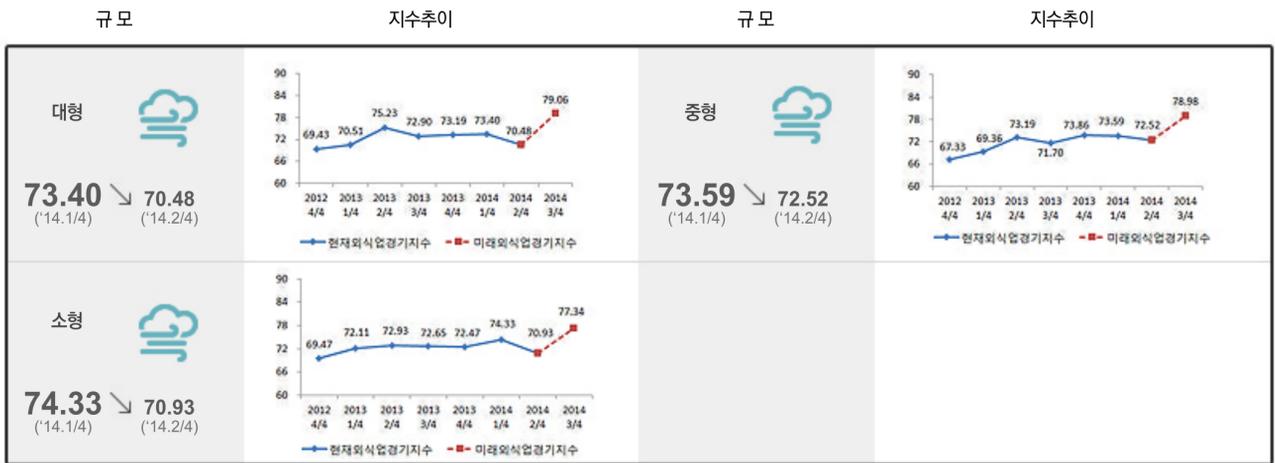
Korean Restaurant Brief



규모별 동향 (사업장 면적 기준)

규모별 동향에서는 모든 규모의 매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형의 경기 하락세가 약간 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3/4분기 외식경기에 대해서는 모든 규모에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하락의 폭은 완화된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소형 사업장이 중, 대형 사업장에 비해 외식경기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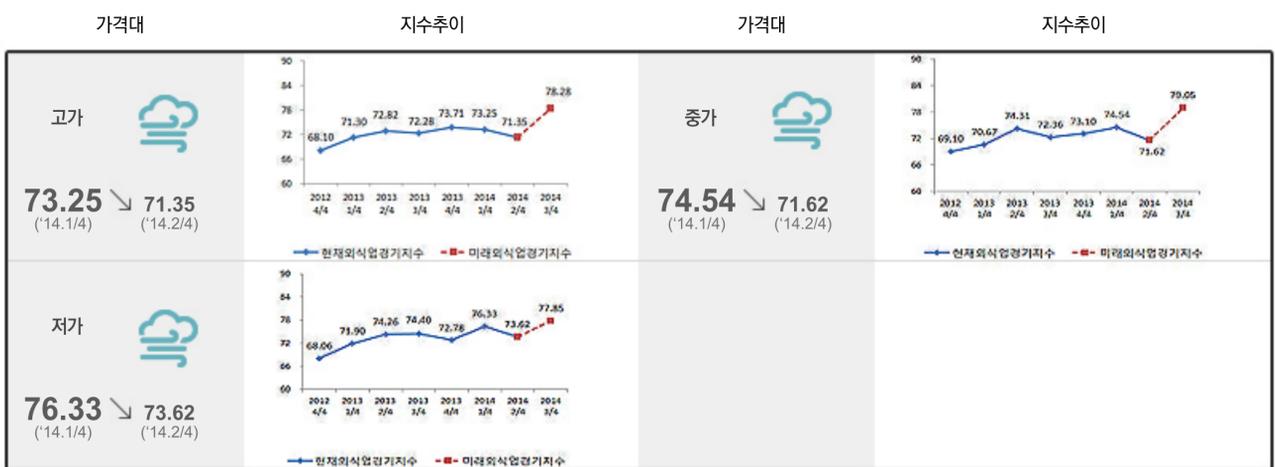


가격대별 동향

가격대별 동향에서는 모든 가격대에서 외식경기의 부진이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저가의 매장 보다는 화식 등 모임 장소로 자주 활용되는 중, 고가의 매장에서의 경기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저가격대는 증가와 고가에 비해 경기 하락의 폭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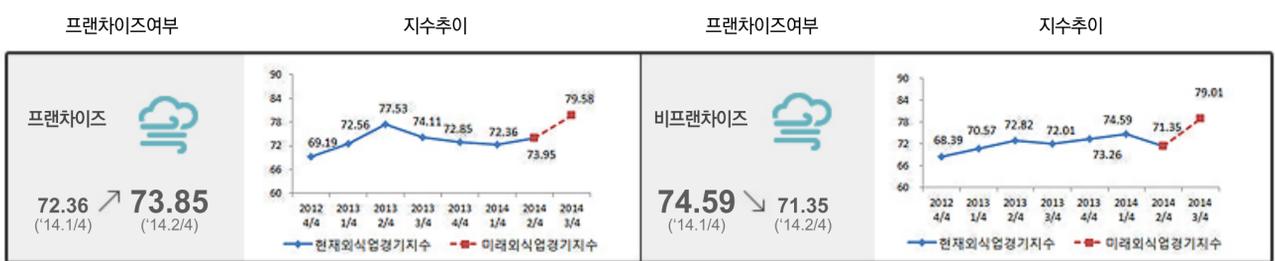
가격대별 미래 경기전망의 경우 모든 가격대에서 2014년 3/4분기에는 여전히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는 업체의 비율이 많으나, 경기 하락의 폭은 2014년 2/4 분기보다는 완화된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프랜차이즈여부별 동향

프랜차이즈 동향에서는 전년 동분기 대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매장 모두 경기가 좋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비프랜차이즈 매장의 경기 하락폭이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2/4분기는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모두 경기 하락폭이 완화된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여전히 지수는 100 이하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대담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식재료원가지수 및 프라임원가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흐린 날씨에 가까움



2014

2/4 분기 외식업경기 동향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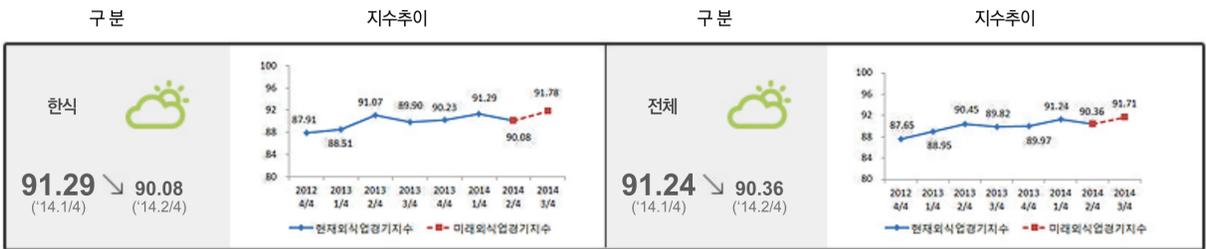
Korean Restaurant Brief



고용동향

외식업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반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사업체가 고용을 늘리는 사업체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4분기의 현재외식업고용지수는 90.36으로 전년 동기대비 고용을 줄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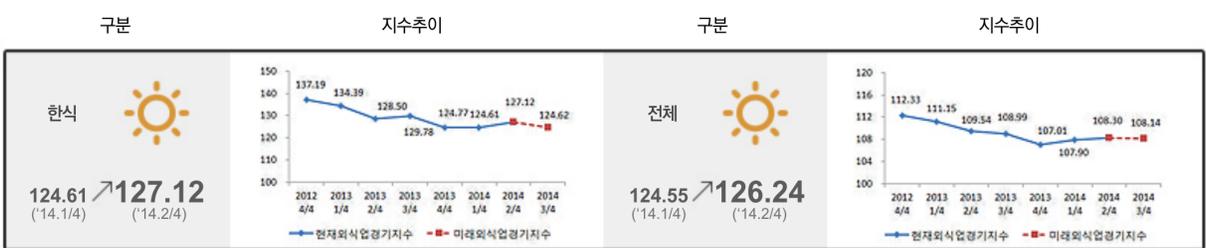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한 세월호 사고 이후 외식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외식업주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대응하는 비용 중 종업원 인력을 감축하는 비용이 두 번째로 높아(7.9%) 인력난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재료지출동향(수치 높을수록 흐린 날씨)

2014년 2/4분기 외식업식재료원가지수는 126.2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0.70정도 높아진 지수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2014년 2분기에도 여전히 식재료 원가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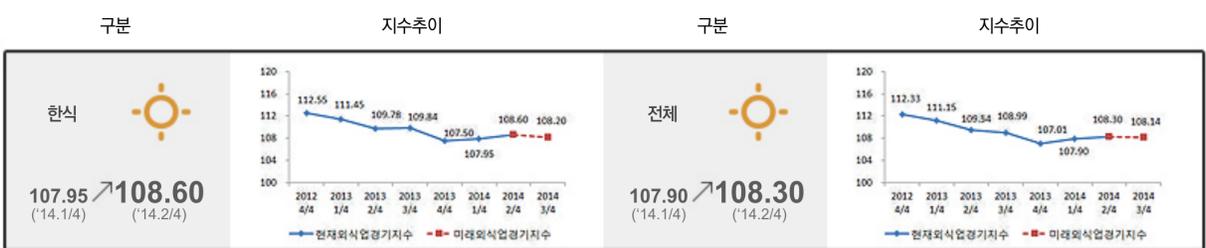
- 2014년 3/4분기 미래 외식업식재료 원가지수는 124.58로 외식업자들은 식재료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여전히 지수는 100 이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식재료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수가 더 많다.



프라임원가동향(수치 높을수록 흐린 날씨)

프라임 원가는 외식업체의 가장 주요한 비용인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종합한 것으로 2014년 2/4분기 외식업프라임원가지수는 108.30으로 나타났으며 전분기 대비 약간의 지수 증가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프라임 원가가 증가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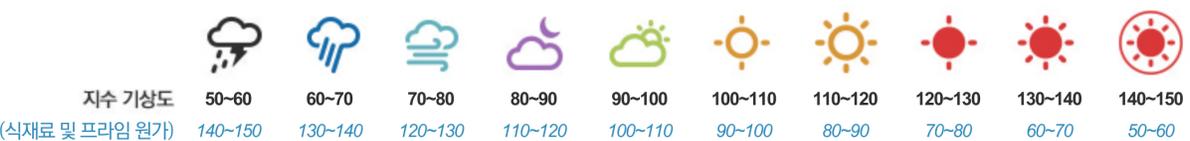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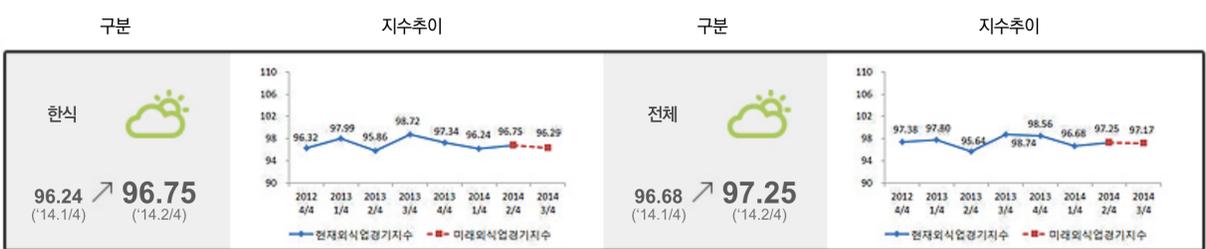
- 2014년 3/4분기의 외식업 프라임원가는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업체의 비중이 더 많으며, 식재료 비용부담의 증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가 프라임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투자지출동향

2014년 1/4분기의 투자지출지수는 97.25로 외국음식점, 비알콜음료점, 한정식전문점, 오리구이 전문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투자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동기인 2013년 1/4분기에는 투자지출지수가 95.64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지수가 약 2.0 정도 증가하여 투자지출을 늘리는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주) 식재료원가지수 및 프라임원가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흐린 날씨에 가까움



14년 2/4분기 이슈

구분	내용
이슈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외식업 매출 회복 지연.... 월드컵 특수 영향도 미미</p> <p>●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세월호 사건 이후 외식업 동향분석</p> <p>1. 조사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에서 453개의 식당에 전화면접으로 2014년 6월23일부터 6월30일에 걸쳐 시행 <p>2.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식업체는 세월호 사건 이후 2개월 시점에서 세월호 사건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이 평균 26.7% 감소하였으며 이는 1개월 시점과 비교해도 약 1.2% 낮은 수치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2개월 시점에서 세월호 사건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79.3%의 외식업체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는 1개월 시점과 비교해 볼 때 약 1.3%정도 매출감소 업체가 늘어난 것임. 외식업의 월드컵의 매출회복 영향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긍정적 영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업체가 90% 이상(92.0%)인 것으로 나타나,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외식업 전체적 영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음. 매출이 회복된 업종은 중식, 서양식, 치킨전문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3%의 중식당과 9.3%의 치킨전문점이 월드컵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은 중식에서 1.3%, 치킨전문점에서 2.1%의 회복을 보였음. 외식업 전체적으로는 0.4% 정도의 매출 회복을 보여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세월호 사건이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식업 업주들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평균 2.3개월 지속될 것으로 대답하였음. 외식업 운영자들은 약 2개월 이후 시점인 7-8월달의 여름 휴가철 경기회복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휴가철이 지난 가을 이후의 시점에서 어느정도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p>종합하여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 1개월 시점에서의 예상과 달리, 현 시점에서 외식업의 매출 회복은 지연되고 있고, 소비 심리의 회복이 더디어질 경우 외식업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세월호 사건의 매출감소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특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종에서만 약간의 매출회복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p>